

# 당 성 (사적 제217호) 唐 城 (史蹟 第217號)

社團法人 唐城史蹟保存會  
會 長 洪 淳 良

당성은 일명 구봉산성(九峯山城)으로 서해안 남양만에 면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 동칠곡리 산53번지 및 동군 송산면 육일리 산65의 2번지에 걸쳐 위치한 면적 11정 7묘의 고성지로서 거금 1332년전인 서기 639년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주위가 2,415척이며 높이는 10척인데 외곽은 석축이고 내곽은 토성으로 되어 있으며 성벽을 비롯하여 성문 및 건물 등의 터가 뚜렷하여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지(城止)는 형태가 현존하여 우아하고 장엄한 옛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1. 당성(唐城)의 유래(由來)

당성은 고구려 영유왕 22년 서기 639년에 당(唐)나라에서 예락문학교사(禮樂文學敎士)홍천하(洪天河), 은세통(殷世通), 목충(睦種), 위령(魏齡), 방비(房丕), 기모(奇牟), 길령(吉寧), 봉수현등(奉守賢等) 8명이 처음 래박(來泊)한 곳으로 왕이 이분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그곳 은수포(銀樹浦(당곶(唐串))), 성을 만들고 그 덕행을 치하(致賀)하여 사적(賜籍) 당성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지금도 이 지방에는 방(房)씨, 기(奇)씨, 은(殷)씨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홍(洪)씨는 천여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



<page 109 사진>

당성은 당시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유일한 항로(航路)인 남경로(南京路)의 대포구(大浦口)로서 선진 문물의 도입에 교두보 역할을 한 역사적 관문인 동시에 수군(水軍)의 요새지(要塞地)로 신라와 백제 등의 공격을 받기도 한 중요한 지역이다.

고구려 영유왕 25년(보장왕 원년) 서기 642년에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난을 일으키자 팔학사의 수반이었던 홍학사는 피란 우거한지 3년이 지난 후 신라에 전이(轉移)하니 신라 선덕여왕이 도호(道號)를 당동선생(唐東先生)이라 하고 덕산촌주(德山村主)로 봉작하시여 국수(國師)의 대우로 민속(民俗)을 개혁(敎革)하라고 지명(指命)하였다 한다.

태종무열왕이 태자태수(太子太師)로 삼고 사록(賜祿)하여 성지(城址)를 당성이라고 관적(貫籍)을 또한 당성이라고 하였다. 후에 문무왕이 당성백으로 봉하고 신문왕이 다시 고쳐 당성후(唐城侯)를 봉하였다.

원래(元來) 고구려의 영토인 당성은 신라에 점령된 후 당항성(唐項城)이라 개칭되었으며 선덕여왕때 백제는 고구려와 합세하여 당성을 공격 접거한바 있었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탈환된 곳이기도 하다.

신라 말 흥덕왕 4년에 당은군(唐恩郡)을 당성진(唐城鎭)으로 고치고 북(北)쪽 강화의 용구진(兪口鎭)과 남(南)쪽 완도(莞島)의 청해진(靑海鎭)과 함께 신라 수군(水軍)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고려 초에도 당성이라고 불려왔으며 수군의 요새지로서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곳이다.

이조(李朝)때에는 화양진(花梁鎭)을 설치하고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두었다고 하며 당성지 경내에 왕에게 진상(進上)하는 과원(菓園)이 설치되었다 한다.

#### 가. 망해루(望海樓)

고려 충렬왕때 남양부사(南陽府使) 정후을경(鄭侯乙卿)이 당성지서변(唐城址西邊)에 남양부(南陽府) 망해루(望海樓)를 건립하여 남양흥씨 세조(世祖)의 역사적 위훈과 충절을 숭앙(崇仰)하고 외국사절 등의 국빈이 유숙하던 공관으로 우리 나라 서해안의 색경(絶景)을 관상(觀賞)케 하였으며 수륙 방어의 군략적(軍略的) 망대(望臺)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중에서 등천(登天)하는 용의 꼬리를 보았다는 등의 서기(瑞氣)어린 사연이 이목은선생(李牧隱先生)의 저서(著書)인 남양부망해루기(南陽府望海樓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옛 건물의 초석만이 남아 폐허 가된 산마에는 무성히 자란 잡초 속을 뒹구는 기와 조각들만 뜻 있는 사람들의 지나가는 발길을 모을 뿐이다.

#### 나. 문정사(文定祠)

이조 인조 14년에 남양부사 민기중(閔奇中) 당성지 동쪽에 문정사를 건립하고 춘추배향하여 왔으며 경종 4년에 추배우당학사(追配于唐學士) 신라덕산부주(新羅德山付主) 태자태수(太子太師) 당성후(唐城侯) 홍공휘(洪公諱) 천하선생(天河先生) 고려익재공신삼중대(翊戴功臣三重大) 광태수(匡太師) 홍공휘(洪公諱) 은열(殷悅)선생 이위(二位)하였다고 경묘갑진남양유생(景廟甲辰南陽儒生) 정운용(鄭雲龍), 조서문(趙瑞文) 등(等)의 통문(通明文)에 명기(明記)되어 있다.

## 2. 문화재 지정

이조말기 경수국치(庚戌國恥) 이후 토지 세부측량(稅賦測量) 당시에 고적인 관계로 개인 소유의 취득을 일절 불허하고 국유림의 요 보존림(保存林)으로 지정(指定)하여 계속 보호중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남양홍씨 대종중중앙총회 도유사인 필자명의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하여 보호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제1차로 고 이홍직(李弘植)위원장의 현지조사와 제2차로 이기백(李基白)위원의 현지조사 보고로서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제2차회의 (71.4.7)에서 심의 통과되어 사적 217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이 국, 공, 사유림 30,000평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보 호 구 역 지 정

보 호 구 역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경기 화성 신서 상안리	산 27-1	임 야 분묘지 임 야 "	6정 3,500보 중 2,570평	서울 종로 연지동 223	심 기 업
	산 31		3정 7,200보 중 4,140평		화 성 군
	산 32		8정 0000보 중 2,400평		국 유
	산 33-1		5정 3,300보 중 10,070		심 기 업
경기 화성 신서 상안리	칠곡리 산37	"	평	박 준 배	홍 찬 후
	산 38-2	임 야	1정 3,900보 중 600평	경기 화성 서신 칠곡리104-1	박 속 자
	산 38-3	"	2정 3,800보 중 450평	" 전곡리 65	김 성 필
	산 51	"	2정 2,800보 중 480평	" 171	홍 건 유
경기 화성 서신 칠곡리	산 52	"	6,500보 중 750평	" 331	국 유
	산 53	"	3정 2,400보 중 1,350평	경기 화성 서신 전곡리 246	홍 덕 유
	산 54	"	2정 0,700보 6,210평	칠곡리 363-1	최 도 철
	산 55-5	"	2정 6,300평 중 1,020평	" 349	홍 정 유
송산 옥일리	산 70-6	"	8,800보 중 420평	" 338	김 진 원
	산 53	"	3정 2,000보 중 720평	송산 옥일리	김 완 규
	산 54	"	5,000보 중 450평	수원시 매산로 3가 35	김 부 준
	산 57	"	5,900보 중 570평	경기 화성 송산 옥일리506	김 원 용
경기 화성 송산 옥일리	산 65-1	"	2정 5,900보 중 870평	" 534	국 유
	산 65-2	"	7,700보 중 780평	경기 화성 송산 옥일리 548	김 제 백
	산 65-4	"	1정 6,000보중 3,000평	" 547	김진영외
	산 67	"	3,900보 중 390평	" 567	2인
계	산 69-1	"	1,300보 중 390평	" 590	김 형 두
	산 68-4	"	1정 7,100보 중 670평		박 천 중
	22필		1정 1,500보 중 1,395평		
			40,700평		

### 3. 보수정화계획

오랜 세월 속에 방치되었던 당성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당성사적보존회를 조직하고 연차적으로 보수정화사업을 실시코자 하는바 계획중인 사업을 건명별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팔학사 기념탑 건립
- 2) 홍학사공 사우건립
- 3) 망해루 복원
- 4) 홍학사공 송덕비 건립
- 5) 당성문 건립(삼문, 홍살문, 포함)
- 6) 재실 (동재, 서재) 건립
- 7) 조경(造景)공사 (관상목 식재)
- 8)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 9) 당성지 진입로 설치 공사
- 10) 축성보수 및 배수로 공사
- 11) 수호관리용 전담매입
- 12) 기타 부수공사

### 4. 자료



사적 제217호 당성지정보호 구역도

당성에 대한 관계문헌

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권지구(卷之九)

나. 고려사(高麗史) 56권

다. 목은집(牧銀集) 당성인(唐城引) (범십사구(凡十四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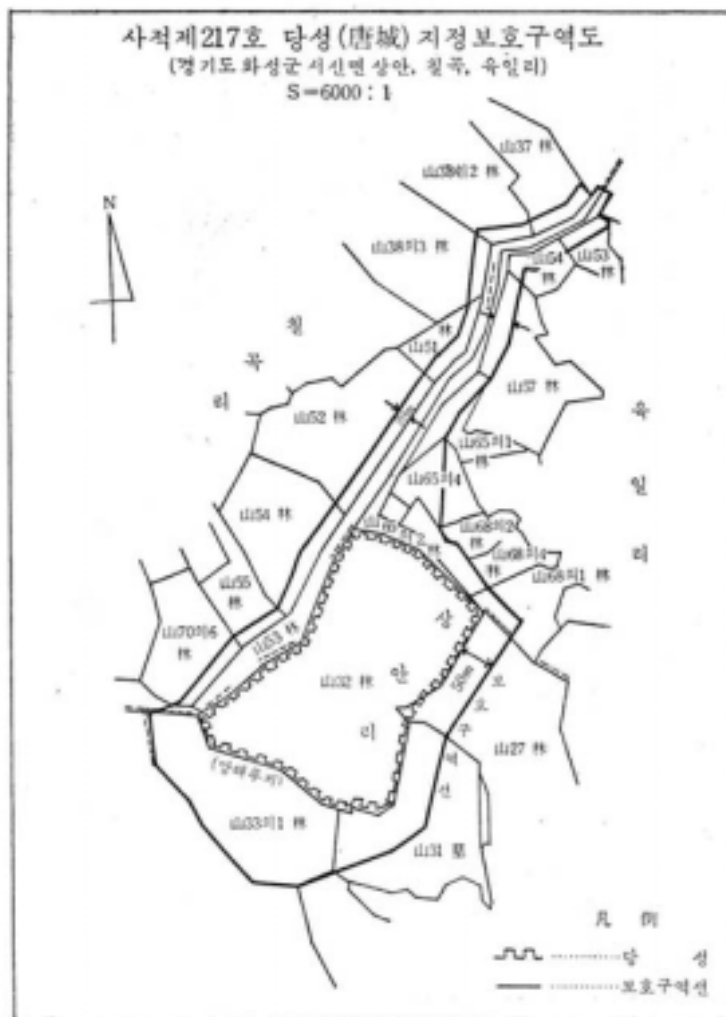
라. 남양부(南陽府) 망해루기(望海樓記)

마. 남양부(南陽府) 계고요람(稽古要覽)

바. 남양부(南陽府) 여지승람(輿地勝覽)

사. 남양부(南陽府) 읍지(邑誌)

등이며 그내용을 발췌(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page 112 원문>

<page 113 원문>

<page 114 원문>